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h1>보 도 자 료</h1>	
배 포 일	2026. 4. 30.	기관명	오봉유치원
홍보담당관 (공보담당)	전화) 278-1791~5	기관장	정현희
	팩스) 278-1789	담당자	교사 임하영(785-5061)
붙 임	사진(○), 영상(×)		

**양산 오봉유치원, ‘하하호호 오봉유치원 운동회 및 어린이날 축제’ 개최**  
**-오봉초 강당 등에서 운동회, 영화 관람, 케이터링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

양산 오봉유치원(원장 정현희)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30일, 유아들이 함께 어울리며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하하호호 오봉유치원 운동회 및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아들의 기초체력을 증진하고 또래 간의 협동심을 기르는 동시에, 어린이날을 맞아 신체 활동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축제로 기획되었다.

행사의 문을 연 개회식에서 원아 대표들은 ▲경기 규칙 준수 ▲넘어져도 울지 않는 용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 ▲즐거워 참여 ▲친구를 향한 응원을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하며 정정당당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오봉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1부 ‘하하호호 오봉운동회’에서는 장애물 달리기, 고깔 뒤집기, 불퐁공 넣기 등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춘 다채로운 종목이 펼쳐졌다. 아이들은 팀 조끼를 입고 열띤 응원 속에서 즐거운 경쟁을 경험하며 협동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특히 유치원 측은 어린이날 선물로 시원한 여름 활동복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더욱 활동적이고 쾌적하게 운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경기를 마친 후에는 모든 유아의 사진이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얼굴 메달’을 수여하며, 승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노력한 모든 어린이가 주인공임을 일깨워주었다.

오후 2부 행사에서는 유치원 강당이 ‘두근두근 오봉시네마’로 변신했다. 아이들은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담은 애니메이션 ‘독도수비대 강치’를 관람하며 즐거운 문화 시간을 가졌다. 이어 3부 ‘함께하는 오봉맛집’에서는 요리조리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주먹밥, 순살치킨 등 정성껏 준비된 케이터링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뜻깊은 어린이날 축제를 마무리했다.

오봉유치원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장소 사전 점검 및 비상약품 비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가치를 담아 진행되었다.

오봉유치원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창의적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① 오봉초등학교 강당에서 오봉유치원 어린이들이 고깔 뒤집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② 오봉초등학교 강당에서 오봉유치원 어린이들이 불꽃공 던지기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③ 요리조리방에서 '함께하는 오봉맛집' 케이터링 간식을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있다.



경남교육  
아이중아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봉유치원 교사 임하영(☎055-785-5061)